



도코모·미 AT&T Wireless, W-CDMA 방식의 3G서비스 합의

NTT 도코모와 미 AT&T Wireless Services는, 2004년 12월말 까지 전미 4대 도시에 있어 W-CDMA 방식에 의한 3G서비스를 개시하는 것에 합의 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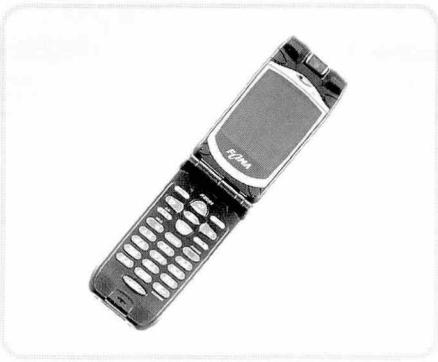
양사는, 2000년 12월에 체결한 투자계약서에 대해, 2004년 6월까지 미 상위 50개 시장 중 13개 시장에서 W-CDMA 방식에 의한 3G서비스를 도입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이 계약은 이번 발표에 의해 해당 조항이 재검토되어 2004년 12월말일까지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달拉斯, 샌디에고의 4개 도시에서, W-CDMA 방식에 의한 3G서비스가 개시되게 된다.

AT&T Wireless에서는, 3G서비스 도입을 위해 이사회 아래에서 기술 위원회를 설치, 도코모와 공동으로 3G서비스의 구체적 계획을 검토해 간다고 밝혔다. 또, 양 회사의 협력 관계를 강고하게 하기 위해, 도코모로부터 2명의 이사를 파견해 전략적 과제에 관한 정보 공유를 하겠다고 밝혔다.

가트너 저팬, 2005년은 W-CDMA 보급의 해

가트너저팬은 W-CDMA 방식의 문제점이 2004년에는 해결되어 2005년에는 보급이 확산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러한 견해는 지난 1월 14일부터 17일까지 마이하마의 힐튼 토쿄 베이에서 개최된 '3G Mobile World Forum 2003'에서 가트너저팬의 애널리스트 미츠야마 나오코씨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한 것이다.



현재는 2001년 10월 1일 NTT 도코모, 2002년 12월 20일 J-폰이 상용 서비스를 개시한 W-CDMA 방식의 제3세대 서비스에 비해 au의 CDMA2000 1x방식에 의한 3G서비스가 호조이지만, 2005년에는 W-CDMA 방식이 널리 보급될 것이라고 미츠야마 나오코씨는 밝혔다.

미츠야마 나오코씨는 또 W-CDMA 방식에 의한 3G가 보급되지 않는 이유로서, '커버 에리어가 충분하지 않은 것', '배터리의 제한시간이 적은 것',

'단말 가격이 비싸다'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이 중 커버 에리어에 대해서 도코모는 2003 연도 말에 인구 커버율 97%, J-폰은 2003년도 중에 인구 커버율 95.4%를 목표로 하고 있어, 2004년에는 현행 PDC 수준의 인구 커버율이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다. 배터리의 제한시간도 도코모가 2002년 12월 10일에 발표한 새로운 FOMA가 약 170시간~180시간으로 당초의 55시간부터 보면 약 3배가 되는 등 서서히 개선되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미츠야마씨에 의하면 이러한 문제점은 2004년에는 해결할 전망으로 올해에는 PDC의 감소가 시작되어 2005년에는 Foma의 보급이 확산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명함 케이스 사이즈 휴대폰전용 태양광 충전기



충전기 메이커인 Zip 요금은, 독일 지멘스사의 다결정 태양전지를 탑재한 휴대전화전용 태양광 발전 충전 장치를 개발, 2월중에 판매 개시한다.

이 충전기는 PDC용과 cdmaOne용이 있으며, 가격은 1980엔 정도가 될 전망이다.

동제품은, 다결정 태양전지 패널이 탑재된 명함 케이스 사이즈의 휴대전화용 태양광 발전 충전 장치로, 휴대전화의 충전 연결기부에 동제품을 접속해 사용한다.

태양광에 연속으로 4시간 정도 노출했을 경우, 약 60 분의 연속 통화, 약 3일간의 대기 시간이 가능하다. 덧붙여 충전중에서도 수신 발신이 가능하다.

아웃도어 등 전원의 공급이 불가능한 장소나, 지진 등의 재해시의 정전 대책, 또 산에서 조난했을 경우의 긴급 충전 장치에도 이용이 전망되어 향후 키오스크등의 역 매점이나 가전 양판점 등에서도 판매될 예정이다. 또 일회용 타입의 충전기와는 달리 약 1,000회 사용할 수 있다. 패널부의 컬라는 블루로, 향후 핑크도 판매될 예정이다. 크기는 120.5×57.5×4 mm, 무게는 40g이다.

산요전기, 휴대 카메라전용 CCD 증산

산요전기는 지난 1월 21일, 카메라 부착 휴대전화의 CCD에 대해 450억엔의 증자를 실시해, 2004년 봄에는 월 500만개로 증산한다고 발표했다.

산요전기는 또한 2003년도는 CCD 및 화상 신호 처리용의 DSP의 웨이퍼 공정, 텁 사이즈 패키지 공정, 모듈 조립 공정 등의 각 라인을 증강, 총액 100억엔의 투자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당분간은 현재의 주력 제품인 1/9형태 CCD 모듈(11만 화소)에 주력하지만, 이미 VGA(31만 화소) 사이즈의 제품 개발을 거의 완료하고 있어, 생산체제의 정비와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서 시장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산요전기는 밝혔다. 또한 향후 휴대전화 용도 뿐만이 아니라, 방범 카메라 용도, 로보트, 의료 분야에도 진출할 예정이다.

도코모, NEC제 FOMA 단말 「N2051」 발매



NTT 도코모는 지난 1월 23일부터 NEC제의 i모션 메일 대응 트윈 카메라 탑재 FOMA 단말 「N2051」를 발매한다. 동단말은, 12월 10일에 발표된 신단말 3기종의 하나로, 당초 2002년말 발매 예정이었으나 이번에 발매가 정해졌다.

「N2051」는 31만 화소와 10만 화소의 트윈 카메라를 탑재한 FOMA 단말로, 360도 커서를 움직여 PC의 좋아하는 메뉴 선택을 실시할 수 있는 '뉴로 pointer'를 채용하고 있다.

NEC로부터 뉴로 pointer에 대응한 i어플리가 제공될 예정이다.

또, 음성 통화/i모드(또는 패킷 통신)/메일/툴의 4개의 기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멀티스킹' 기능에 대응, 기동 중의 소프트 확인이나 변환을 실시할 수 있는 '멀티 버튼'이 탑재되었다. 문자 입력에는 'T9'를 채용, 변환 후보를 예측해 표시하는 '워드 예측'에도 대응하고 있다.

사전은 다운로드도 가능해, NEC의 사이트로부터 사전 파일을 5개까지 다운로드할 수 있다.